

영어 교육의 효용: 언어의 구체성과 추상성

김 우 창
(고려대학교)

Kim, Woo-Chang. (2000). Use of English language education: The concrete and the abstract as cultural indices. *Foreign Language Education Research*, 3, 15-32.

The emphasis on the practical use in the teaching of foreign languages especially English has prevailed among Korean educational policy-makers in recent years and is often considered the corrective guide that may redress all past irregularities in pedagogy. One of the important cultural counter concepts to this is what they call 'Bildung' or 'Ausbildung' in German or simply English 'culture' in the sense of cultivation of human potential. The so-called 'practical' dimension of language learning is not only tied to the whole gamut of cultural signification; the fundamental need to learn another language also concerns an individual or collective desire to embrace the cultural 'Other' through its language. In overly anathematizing grammar-oriented pedagogy as it happens in recent tendentious thoughts, the teacher could possibly be sacrificing the learner's discipline and exercise in cultural intelligence. In the Chosen Dynasty, the prevailing elite culture based on the Sino-Korean classics very often resulted in the division of concrete reality and abstract language. The recent emphasis on the practical in language teaching apparently gives one the impression that it could remedy the cultural harm created by that divisiveness. However, the blind and superficial emphasis on the merely practical could be in its negative capacity of abstraction as detrimental to the human potential of a culture as the precedent Sino-Korean culture of the Chosen era at its worst moment.

I.

영어 교육 또는 외국어 교육에 있어서 실용성의 강조는 어제 오늘에 시작된 것이 아니지만, 작금에 와서 모든 다른 관점을 압도하는 지상명령이 되었다. 나는 이미 오래 전부터 외국어 교육이나 습득에 있어서의 실용성의 강조에 대하여 비판과 반대를 여러 곳에서 표명해 온 바 있다. 그러한 글을 쓰기 시작한 것은 벌써 20여년 전부터이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그리하여 지금 말하려는 것은 다분히 지금까지 말해 온 것을 되풀이하는 것이 될는지 모른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말을 배워서 쓸 데가 없는 수가 있겠는가. 수메리아 말을 배워서 어디에 쓸 것인가 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것은 수메리아 문명을 이해하려는 사람에게는 틀림없이 매우 중요한 쓸모를 가진 말일 것이다. 또는 불경이나 인도 사상을 원점으로부터 연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산스크리트어나 팔리어가 매우 쓸모 있는 말이 될 것이다. 실용영어라는 말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할 때 그것은 실제로 쓸모가 있는 영어라는 말일 것이다. 그것이 국민 교육의 일부가 되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널리 많은 사람이 배워야하는 것으로 이야기되기 때문에 저절로 영어는 산스크리트와 같은 언어와는 전혀 다른 쓰임새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 다른 쓸모는 자명한 것처럼 생각된다. 그러나 참으로 이것이 자명한 것일까.

영어의 쓸모로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영어를 말하는 사람과 소통할 능력을 갖출 수 있게 영어를 교육 습득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면 이 소통이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게 이해될 수 있는 개념인 것은 아니다. 소통이 수준에 이르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어려울 수도 쉬울 수도 있는 것이겠지만, 그보다도 그 정의에 있어서 무엇을 누구하고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이야기한다는 것인가하고 물어 보면, 대답은 참으로 막연한 것이 되는 것을 면치 못한다. 택시 운전수, 관광객, 상사원, 외교관, 과학자, 인문과학자 각각 필요가 다르고 쓸모가 다를 것이다.

쓰임새는 대개 최소 공약수로 생각된다. 최소공약수로 생각하면, 모든 국민이 영어를 말하여, 영어 말하는 외국인이 길을 물어보면, 대답 할 수 있어야 한다거나, 또는 한국인으로서 외국에 나가서 그에 비슷하게 길을 물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얼핏 생각되는 것처럼 이것이 참으로 현실성이 있을까. 텔레비전에서 영어를 몇 년을 배워도 길거리에서 외국인에게 길을 일러 줄 수 없는 사람이 많다고 개탄하는 경우를 보았지만, 길거리를 별로 나다니지 않는 때문인지도 모르지만, 사실 나는 이 날까지 길을 물어보는 외국인을 서울에서 한 번도 만나 본 일이 없다. 그런 일이 드물다고 하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나쁜 일이 아님은 물론이다. 다만 이 정도의 확률을 위하여 그 많은 시간과 정력과 비용을 써야 되는가를 물어 볼 수는 있을 것이다. 상점을 경영하는 사람이 상품을 고르고 값을 묻는 외국 관광객을 상대로 영어를 구사할 수 있다면, 그것은 조금 더 영어에 들이는 밑천을 뽑은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컴퓨터 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컴퓨터에 나오는 영어의 지시어를 해독하는 것은 더욱 투자 가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다만 요즘에 와서 컴퓨터 언어가 상당 부분 한국어화 되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그 언어는 비교적 제한된 것이라는 것도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길거리 표지라든지 관광 안내라든지도 영어로 써야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것을 일일이 영어 전문가에게 물어서 해야한다면, 그것은 번거로운 것이다. 이러한 정도의 일은 담당 공무원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누구나 잘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오히려 실수를 범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북악 스카이웨이에 가면 서울시를 조감할 수 있는 곳으로 팔각정이라는 곳이 있고, 스테인레스판에 새겨 놓은 사진 촬영 금지 표지가 있다. 그 영문은 "Don't take a photography of a here because of military protection area" 운운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것은 그 외의 공공장소의 안내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것이다. 잘못된 일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이러한 잘못된 화제를 제공해주고 이국적 정취를 자아내고 웃음을 자아내는 데에는 도움을 주는 것으로 치부할 수도 있는 일이다. 다만 위엄을 갖추고 정확을 기해야 할 중요 문서들에서 이러한 실수가 생겨나는 일이 많다면, 그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만은 아니다. 이것은

문학 작품의 번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이것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문제의 하나는 외국어가 쉽게 정복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자신감이다. 모든 사람이 영어를 잘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저절로 아무나 잘한다는 자신감으로 옮겨지게 마련이다. 모든 사람이 영어를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도로표지와 같은 간단한 것도 공식적 표현은 완벽한 영어능력이 없이는 제대로 만들지 못한다. 말은 바 일에 맞는 다양한 수준의 숙달이 필요하다. 영어의 쓸모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러한 영어의 문제가 최소공약수의 기준으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를 물어야 할 것이다. 최소공약수의 실용성을 강조하다보면 실용성의 수준과 다양함을 놓치고 결국은 실용성도 놓지는 결과를 가져 오게 된다. 한 곳에서 쓸모 있는 것은 다른 곳에서 쓸모 없는 것이 된다. 또는 낮은 차원에서 쓸모 있는 것으로 정의되는 실용성은 더 높은 차원에서는 그렇지 않는 것이 된다.

이러나 저러나 간단한 의미에서의 실용이란 대체로는 정의되는 경제 활동의 관점에서 정의되는 것이다. 이것을 받아들인다고 하여도 쓸모가 길 거리에서 길을 안내해준다거나 관광상품의 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경제적 의미의 실용은 말할 것도 없이 보다 복잡한 산업과 무역 관계에서의 의사소통을 포함한다. 그런데 이러한 경제 관계의 의사소통은 반드시 경제 관계의 의사소통에 한정되어서 능률적인 것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의 은행들이 외국에 진출하던 초창기에 독일에서 은행을 개설하고 경영을 맡았던 어떤 사람이 독일에서 돌아 와서 나에게 이러한 말을 한 일이 있다. 그는 독일에 파견되기 전에 이미 독일어를 많이 공부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일상적인 의사소통에는 큰 불편을 느끼지 아니할 독일어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 독일 근무에서 발견한 것은 일상회화—Umgangssprache로는 불충분하다는 사실이었다. 상거래를 말하면서 사람들이 잊어버리는 것은, 아무리 상거래의 핵심이 금전 거래라고 하더라도, 그것도 인간이 하는 행위라는 사실이다. 인간적 주고받음이 거기에 있는 것이다. 이것은 장기적이고 큰 거래일 수록 그렇다. 우리는 큰 무기 거래에 뇌물이 오고 가는 것을 알지만, 이 뇌물은 아는 사람들의 연줄을 통해서 또는 미인의 매력의 줄을 타고 순환한다. 이것 자체가 돈의 거래에 돈 이상의 것이 돈다는 증거이다. 조금 더 정직한 거래

의 차원에 내려 와서, 위에 말한 은행 지점장의 이야기는, 오래 은행 사업을 하려면 만찬이나 음악회 또는 가정간의 친교 등의 기회를 가지게 되고 이런 기회는 통화는 여러 가지의 문화적인 담소를 포함하게 되고, 그러니 참으로 유리하고 지속적인 상거래를 위해서는 이러한 담소를 할 수 있는 문화 상식과 문화 회화의 습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상거래에도 돈과 수표 이외에, 문화적 화제를 주고 받는 데에 필요한 문화적 잔돈이 예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화의 잔돈을 준비하고 그것을 그때그때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은 고도의 언어적 문화적 수련을 요구하는 일이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러한 문화의 잔돈은 보다 넓은 문화 자금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자금이 튼튼하다면, 문화 화제의 상거래는 조금 더 여유 있는 것이 될 것이다. 이러한 자금을 축적하는 데에 요령과 준비서가 있을법하니, 그에 대한 벤처 기업도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교양 입시 준비서가 아니고 이 문화 자금이 참으로 깊은 교양과 지식에서 나오면 그보다 더 좋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금전적 이해 관계의 관점에서는 반드시 수지 타산이 맞지 아니하는 것일 수 있다. 깊은 의미의 문화 학습은 경제적으로나 시간과 정력으로나 많은 투자를 필요로 한다. 일단 단기적인 관점에서 투자에 대한 회수가 쉽지 아니할 것이다. 아마 더 중요한 것은 참다운 교양과 금전적 효용 사이에는 깊은 적대 관계가 있다는 사실이다. 문화적 지식은 과학적 지식이나 마찬가지로 호기심에서 나온다. 그것은 그 결과는 이러 저러한 지식의 잡동산이의 퇴적을 의미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문화에 관련되는 한 (사실은 과학적 지식의 경우도 그러하다고 하여야하겠지만), 문화는 인간의 내면적 지향—아름다운 것을 향하고 그것을 넘어서 어떤 이상적 상태를 향하는 지향에 대응하여 생겨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영어에는 (가령 독일어의 Bildung이나 Ausbildung과 같은 말에 비할 수 있는 교양이란 말이 없지만, 아놀드가 문화와 교양을 아울러 의미하는 말로서 culture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이것을 인간 능력의 최대한의 발전, 인간의 완성이라고 정의한 것은 문화의 내면적 총동으로서 인간의 깊은 자기 완성에의—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세계 완성에의 지향을 말한 것이다. 문화이든 교양이든 그것이 인간 자체의 완성을 목표로 하는 것이라면, 인간의 수단화 또는 인

간 수련의 수단화는 교양의 이념에 모순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교양의 관점에서 교양의 상거래에의 이용은 그 자체로 이미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된다. 오늘의 현실에서 아마 깊은 의미에서의 교양을 가진 상사원은 사업의 세계로부터 조기 탈락하게 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우리는—인문과학자의 아전인수라고 할는지 모르지만, 본질적인 의미의 문화도 장기적으로 볼 때 인간의 번영에—경제적인 것을 포함한 인간의 번영에 기본이 된다고 생각하고 싶어한다. 경제이든 국가이든 사회이든, 사람의 경영은 궁극적으로 사람의 심성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하고, 이 심성의 깊은 곳으로부터 나오는 소망을 이룩하여주는 것이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 그 경영은 파탄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다—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하는 것이다. 문화 현상의 전부 가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궁극적인 의미에서는, 이 인간 심성의 깊은 현실과 소망에 관계되는 것이 문화이다. 조금 더 단기적으로 말하더라도, 결국 상거래나 경제도 사람이 하는 일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일인 한, 일을 궁극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사람의 능력—하나만을 믿고 나아가는 능력이라기보다 여러 가지 것을 널리 고려하고 해낼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이러한 다기한 능력에 기초한 도덕적 신뢰성이라고 한다면, 문화적 능력이 여기에서도 결국에는 중요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알팍한 의미에서의 문화와 교양이라도 중요해지는 것은 그것이 이러한 인간에 대한 또는 인간됨에 대한 증표로서 작용하기 때문일 것이다.

돈이 되는 것이든 아니든, 그것이 인간의 본 능력의 신장 그리고 인간의 인간됨의 신장에 관계된다고 할 때, 문화와 교양을 등한시하는 사회가 장기적으로 잘되는 사회일 수는 없다. 영어의 효용이 위에서 말한 바 실용적인 것을 무시 할 수는 없지만, 영어 또는 일반적으로 외국어 습득이나 교육의 의의는, 적어도 그 일부에 있어서 또는 근본적으로, 교양적인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어떻게 시작 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대학에서 영어를 교양 영어라는 이름으로 가르쳐 왔던 것은 암암리에 이러한 이해로 인한 것일 것이다.

교양이란 관점에서 영어의 의의는 제일 간단히 말하여 영어권의 문화에 나아가는 통로라는 점에 있다. 분야가 무엇이든지 간에 영어로 인하여 접근이 가능하게 되는 정보가 방대하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것이지만, 여기

에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영어 교육의 중요한 기능의 하나라는 것이 별로 지적되지 않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간단한 의사 소통 그리고 영어 정보의 획득—국가 전체라는 관점에서 어느 쪽에 더 큰 비중이 두어져야 하겠는가—는 새삼스럽게 말할 필요가 없는 일일 것이다. 이것은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에 있어서도 그러하지만, 문화의 측면에서도 그러하다. 오늘날 사회과학이나 자연과학이 한국어 정보만으로 존립할 수 없는 것은 다 아는 일이다. 문화에 있어서는 한국어 이외의 문화 유산과 업적에 대한 지식이 그만큼 필요한 것은 아닐는지 모른다. 그러나 문화의 자족성은 흔히 생각되고 주장되는 것만큼은 환전한 것이 아닐 것이다. 이것은 어느 전통에서나 그러하지만, 한국처럼 오늘의 세계에 새로 적응해 나가야 하는 경우에 특히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관련되면서 또 다른 영어 또는 외국어 습득과 교육의 교양적 의의가 있다. 이것은 분명하게 그 얻는 바를 말하기는 어려우면서도 사실 가장 근본적인 의미에서 영어와 또는 외국어 교육을 교양 교육의 일부가 되게 한다. 이 점에 대하여 나는 10여년 전에 이미 길게 논한 바 있다.¹⁾ 그 때도 언급함 바 있는, 뉘른베르크의 김나지움의 교장을 하던 헤겔의 말은 외국어 교육의 핵심을 지적하는 말이다. 그는 학생들이 고대어와 문학을 공부하는 것을 정당화하면서, 인간의 자아 형성은 자기에 대립되는 타자를 필요로 하고, 이 정신 형성 과정에서 가장 적절한 타자가 되는 것 고대어 문학이라고 말하였다. 이 타자의 매개를 통하여 사람의 자아는 보다 넓고 확실한 원리로서 또는 궁극적으로는 보다 보편적인 정신 원리로서 정립되는 것이다. 이 자아 수련의 과정은 고전어 문법의 학습, 이 학습을 통한 로고스에 대한 개안, 그리고 고대 문화의 보편적 지평에의 진입—이러한 단계로 나아간다. 고대어든 영어든 아니면 다른 언어든, 외국어 학습의 깊은 의미는 오늘에 있어서도 같은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의 외국어 교육에서 가장 욕을 많이 먹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문법 교육이다. 비단 언어교육에서만이 아니라, 현상에 대한 지나친 법칙적 분석적 접근은 교육의 대상과 함께 그것에 대한 흥미를 죽여버리는 결

1) 김우창. (1993). "외국문학의 수용의 철학," *법없는 길*. 민음사.

과를 가져온다. 살아 있는 직관을 벗어나는 모든 변쇄철학은 죽음의 증표이다. 이것은 학습 대상으로서의 문법의 경우에도 그러하다. 그러나 헤겔적인 의미에서 정신의 발전의 한 기초 단계로서의 문법에 대한 각성이 반드시 살아 있는 언어 체험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창조적인 로고스에 대한 각성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우리가 언어에 문법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외국어와의 접촉을 통해서 일 것이다. (그것이 자국어의 것이든 아니면 외국어의 것이든, 아마 역사적으로도 문법에 대한 학문적인 연구는 언어와 언어의 접촉으로 인하여 유발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우리가 처음으로 습득하게 되는 문법은 언어의 법칙성—그 창조적 법칙성에 대한 최초의 증거가 된다. 문법은 언어의 창조적 사용을 위한 조합의 원리이다. 그러나 언어는 문법적 법칙성으로 단어를 조합할 뿐만 아니라 세계를 조합하는 로고스이다. 사람은 언어를 통하여 세계를 객관적으로 구성한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언어 한편으로 언어가 객관적 세계에 대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인간의 구성능력으로 발현으로 인한 것이다. 언어는 인간과 세계의 중간에 존재한다. 그럼으로써 언어는 인간으로 하여금 세계 자체를 재구성할 수 있게 한다. 이 언어의 구성과 재구성 작용은 인간 자신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인간은 언어를 통하여 세계의 구성과 재구성작용의 주체로서 구성되는 것이다.

물론 세계나 자아와 관련하여 언어가 수행하는 창조적 기능은 우리에게 쉽게 인식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그러니 만큼 그 창조적 기능을 한껏 수행하지 못하기도 한다. 세계와 자아에 대한 언어의 창조력 자체가 반드시 의식화됨으로써 한껏 발휘된다는 말은 아니다. 아마 그것은 언어 학습의 과정에서 안으로부터 자라나는 것이 되는 것일 것이다. 그러나 문법을 포함하여 언어에 대한 대상적 인식이 이러한 성장에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은 생각할 수 있는 일이다. 그리고 우리의 자국어 습득이 너무나 무의식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일부가 아니라 객관적인 이물질로서 접하게 되는 외국어의 학습은 일반적으로 언어 능력의 성장과 또 그에 대한 의식적 각성에 중요한 방법이 된다. 외국어를 통하여 알게 되는 문법을 비롯하여, 외국어의 학습은 일반적으로 인간과 언어의 창조성 변증법적 전개에 중요한 계기가 된다. 물론 이것은 단순히 언어의 문제가 아니고 세계와 자아 인식 그리고 그것의 창조적 가능성의 각성에 대한 문

제이다.

방금 말한 바와 같은 주장은 외국어 학습에 대한 지나치게 과장된 의의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할는지 모른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될 필요가 있는 주장일 것이다. 그러나 언어 습득이 가질 수 있는 이러한 가능성이 실용성에 대한 지나치게 단순화된 강조로 인하여 시계로부터 사라지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서양에 있어서나 한국에 있어서나, 외국어 학습은 장구한 세월 동안 학문과 수양의 커리큘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다. 한국에서 한문이라는 외국어의 학습에 있어서, 반드시 실용의 관점이 중요하였든 것이 아님은 말할 것도 없지만, 동시에 단순히 보다 나은 사회의 정보를 획득하자는 전략적 계산이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 설사 그러한 생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외국어 학습이 정신적 기율—세계와 인간의 형성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인이면서 객관적 인식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정신의 기율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을 것은 짐작할 수 있다. 외국어를 통하여 얻는 고전에 대한 지식에 못지 않게 그 학습의 과정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이 오늘의 실용 외국어의 강조에서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다.

II.

그러나 이렇게 말하면서, 다시 생각해 보면 영어 또는 외국어 교육에 있어서의 실용성의 강조는 사실 꼭 간단한 소통의 관점에서의 소통을 그 목적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아닐는지 모른다. 거기에 들어 있는 전통적인 학습 체제에 대한 비판은 그 학습의 내용이나 목표를 향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그 방법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심각하게 생각해 볼만한 것일 것이다. 가령 문법 학습에 있어서 목표로 해야 하는 것이, 특별한 학문적 목적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규칙을 학습 암기하는 것이거나, 그 이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활용을 익히는 일이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인정할 수 있는 일이다. 즉 우리는 머리에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몸에 익히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안다. 그것은 운

동 기술을 익힌다거나 악기를 배우는 일에 비슷하다. 야구에 대한 이론을 배우는 것과 야구를 잘하게 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다. 바이올린을 아무리 이론적으로 배워 보았자, 바이올린의 연주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언어 습득의 바른 방법의 문제를 생각하는 데에는 단순히 교육이나 학습의 기술의 문제 이상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생각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는지 모른다. 한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학습의 문제를 사람의 두뇌의 구조에 관계시켜 보는 것이다. 가령 언어 학습이 위에서 비친 바와 같이 운동에 숙달해지는 과정에 비슷한 것이라고 한다면, 운동이 관계되는 뇌의 부분은 운동의 이론의 학습에 관계되는 부분과 전혀 다른 것이 되고, 이론 학습의 관점에서 언어 학습을 접근하는 것은 주소를 잘못 잡은 것이라는 결론이 나올 것이다. 촘스키는 사람에게 타고난 언어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한 바 있지만, 이것을 인간의 여러 능력이나 뇌기능의 측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여야 할 지에 대하여서는 분명하게 말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근년의 스티븐 핑커의 저서의 제목, Language Instinct 언어 본능은 언어가 인간 본능의 하나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지만, 이 경우에도 그것의 생리적 근거나 성격에 대하여 분명한 답을 주고 있지는 아니한 것 같다. 또 요즘 우리가 흔히 듣는 이야기의 하나는 언어 습득의 능력이 열두살을 경계로 하여 슬그머니 사라진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현상은 두뇌의 어떤 부분의 변화로 인한 것인가. 이러한 능력 소멸 현상은 언어 능력의 성격에 대하여 무엇을 말하여 주는가. 우리가 이러한 질문들에 답할 수 있다면, 언어 학습에 대한 이해는 조금 더 쉬운 것이 될 것이다.

이러나 저러나 언어 능력이나 본능이 다른 지적 능력과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것이 무엇인가는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말하여 가령, 문법의 규칙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그것을 활용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지적 대상으로서의 문법은 다른 모든 지식 학습처럼 두뇌의 가장 발달된 부분의 소관사일 것이다. 그러나 창조적 수행으로서의 문법이 관계되는 부분은 두뇌의 어떤 부분인가. 또는 적어도 어떤 종류의 두뇌 기능이 관계되는 것일까. 운동의 숙달에 관계되는 것일까. 생물체의 자기 보존의 본능들과 함께 운동이 관계되는 것은 인간의 뇌 가운데에서도 가장 오래된 부분—많은 다른 동물과 공유하고 있는 오랜 뇌부분이다. 이러한 뇌부위의 관점에서 축제나 사회적 의례의 문제를

접근하면서, 인류학자 빅터 터너는 그것이 인간 두뇌의 고등 기능에 못지 않게 하등 기능, “파충류적 그리고 고포유류적 두뇌(reptilian and paleo-mammalian brains)”에 관계되는 것임을 말한 바 있다. 사실 그의 생각으로는 연극을 포함하여 모든 수행적인 행위(performance)는 두뇌의 하등 기능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²⁾ 지식으로서의 문법이 두뇌의 고등 기능을 소장하는 신외피부분(neo-cortex)에 관계된다고 한다면, 수행으로서의 문법은 다른 수행적 행위와 같이 보다 오래된 두뇌 기능에 관계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두뇌의 고등 하등 기능을 말한다고 해서, 수행의 습득이 지식의 습득보다 낮은 종류의 성취라는 말은 아니다. 그리고 터너가 의례행위에 관하여 말하듯이, 수행에는 단순히 하등 기능만이 아니라 하등기능을 포함하는 두뇌의 여러 기능이 동원된다. 또 하나 주의할 수 있는 것은 어쩌면, 모든 창조적 수행은 이러한 여러 기능의 조화, 특히 정신 작용에서의 하등 기능의 작용을 조건으로 하는 것인지 모른다. 수행 중의 문법은 의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우리가 학습으로 습득하는 모든 원리는 완전히 습득될 때 대상적 의식에서 벗어나 나간다. 그럼으로써 그것은 말하자면 인식의 대상 [figure]가 아니라 배경 [background]으로 작용할 뿐이다. 말하자면, 완전 습득된 지식은 하등 기능의 두뇌에 저장되는 것일는지 모른다. 그렇다면, 창조성의 근본은 두뇌의 하등 기능 속에 들어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하여튼 여기에서 이러한 두뇌 기능에 대한 고찰은 과학적인 근거를 가진 것은 아니다. 다만 내가 지적하고자하는 것은 수행적 언어를 지행하는 학습에 있어서, 그것을 지식의 대상으로 접근하는 것이 얼마나 어긋나는 방법인가 하는 점이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느끼는 일이다.

언어 습득이 지식 습득의 과정이 아니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어린 아이들의 언어 습득이 단적으로 증거해 주는 일이다. 언어를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이들이 언어를 배우듯이 무의식적으로 또 자연스럽게 배우는 방법이 될 것이다. 언어 습득에 작용하는 것은, 되풀이 하건데, 지적 능력이 아니라 그것이 성숙하기 이전에도 작용하는 언어 능력 또는 언어

2) Turner, V. (1987). Body, brain and culture. *The Anthropology of Performance*. New York, Performing Arts Journal Publications.

본능이다. 그러나 그것은 십대에 사라진다. (성인의 언어 습득은 어떤 능력 또는 본능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일까? 여기에 대한 답변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하여도, 어떤 경우에도 언어 학습이 수행학습이라는 것은 맞는 말일 것이다. 그러나 어린 아이가 아닌 경우 그리고 자연스러운 생활 환경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행적 학습이 그대로 적절한 것이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경우 학습은 불가피하게 지식으로부터 수행으로 나아가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적 인식에서 수행으로 나아가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분명한 답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이행의 문제는 언어 습득에서만 아니라 인간의 자기 실현에도—즉 교양적 형성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지적 발달을 생각할 때, 많은 것은 수행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리하여 수행으로서 터득하게 된 세계는 인식으로 명료화되고 대상화된다. 여기에서 태어나는 것이 개념과 상징의 체계로서의 학문이다. 그리하여 몸으로 알던 세계는 개념과 상징으로 대치된다. 말할 것도 없이 이러한 개념화나 상징화에서 핵심적인 것은 언어이다. 우리의 일상적 삶에서도 이것은 비슷하다. 우리는 삶의 많은 면에서 수행적 환경에 대한 참조 없이 상징들과 언어만으로 구성된 세계에서 산다. 그러한 경우, 문제는 우리의 정신 생활 그리고 삶 자체가 현실로부터 유리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실의 상징 체계로의 환원은 현실에 대한 보다 폭 넓은 인식과 조종 가능성을 열어 놓게 된다. 한편으로는 상징과 개념 체계 또는 언어의 세계와 다른 한편으로 사실적 현실의 세계—이 두 급수의 정합이 문제인 것이다. 과학은 어떤 면에서는 그 자체의 상징 세계 속에만 폐쇄되어 있는 자족적 체계라고 할 수 있지만, 현실적 관련을 유지하기 위한 사실과 논리의 검증 절차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적 언어 생활에 있어서 그러한 점검은 우리의 경험적 직관 그리고 같은 직관을 가지고 있을 다른 사람과의 부단한 소통 이외에 다른 쉬운 방법이 없다. 인문과학의 경우도 비슷하다. 그러나 인문과학은, 단순한 언어로서도, 그 진술이 지속적 언술로 표현되는 한, 논리적 수사적 타당성이라는 검증 척도를 가질 수는 있다. 그리고 물론 그것이 과학적 진리 기준을 완전히 버리지 않는 한 과학의 엄정성까지는 아니라도 그에 근사한 객관성을 얻을 수도 있다. 학문의 경우에 대하여, 우리의 일상 생

활이 검증되지 아니한 편견과 상투 개념과 오류 속에 영위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것은 다시 말하여, 우리의 언어가 체험적 세계로부터 언어의 세계로 환치됨으로서 생겨나는 부작용이다.

그것을 억설로서 전복하려는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상적 삶의 이점은, 적어도 생활의 범위 안에서는, 그것이 늘 현실의 직관에 가까이 있다는 점이다. 직관적으로 접근되는 세계는 보통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참조 근거이다. 그것이 우리를 정상성에 매어 두는 끈나풀이다.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서의 생활 세계는 수행의 세계이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물질적인 세계와 교섭하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이 물질 세계는 우리에게 오관 또는 더 일반적으로 신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온다. 언어가 수행이라는 것은 그것이 이러한 물질과 신체의 세계로부터 태어난다는 것을 말한다. 말을 배운다는 것은 이러한 물질의 세계를—단지 우리의 직관에 파악되는 정도일망정 이 물질 세계를 또는 달리 말하건데, 몸으로 느끼는 감각들의 혼재 상태를, 언어의 체계 속으로 분절하여 재구성하는 작업이다. 이러한 분절화는 단순히 개념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의미와 의미의 연결을 뜻하지 않는다. 언어는 의미 이전에, 소리이며, 소리의 음악이며, 리듬이며, 이미지이다. 언어는 그 물질적 탄생의 모든 흔적을 가지고 있다. (시는 이러한 언어의 원초적 탄생의 흔적을 지닌는 언어이다.) 언어를 구사하는 것은 이러한 언어의 물질적 요소 또는 수행적 행동 속에 묻어 나오는 물질적 요소의 분절화이다. 그 다음에 통사적으로 표현되는 의미의 문제가 일어난다. 벤자민 워프가 의미의 원시적 토대를 신체적 음성적 차원에서의 “순수한 형태화(pure patternment)”라 한 것은 이에 비슷한 현상을 지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³⁾

그런데 많은 경우 외국어를 공부한다는 것은 이러한 물질적 생성의 과정을 생략하는 것이기 쉽다. 이것은 언어 습득에 있어서 근본적인 결여를 나타내는 것이면서 언어와 세계 그리고 언어와 우리 자신의 관계를 왜곡시키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것은 교양과 문화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생성의 근원에서 먼 언어는 추상적이 된다. 이것은 대개의 경우 위에서

3) Whorf, B. E. (1964). *Language, thought and reality*. Cambridge, Mass.: MIT Press.

비친 바와 같이 우리의 일상적 언어 생활을 상투적인 것이 되게 한다. 상투성의 문화 속에서 언어 학습은 일정한 공식들의 학습과 암기로 생각된다. 이것이 물론 전적으로 틀린 것은 아니다. 언어 소통이란 어느 경우에도 관습적 공식을 활용하는 것을 말하고, 그러한 공식을 활용하면서 어떻게 그것을 넘어가는 주관적 또는 객관적 진실의 뉘앙스를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언어가 전적으로 정해진 공식에만 한정되는 것은 진실의 가능성을 상실하는 일이다. 단순한 사교적 교환(phatic communication)은 공식의 적절한 사용으로 수행되는 것이지만, 공허하고 기계적일 수도 있는 사교의 공식도 계기와 감정의 적절한 조화를 통하여서—또는 더 일반적으로 하나의 문화에 고유한 감정의 구조 속에 동화되어서 진실성 또는 진실성의 효과를 얻는다. 이것은 기계적 인사말을 외국어로 사용하는 경우에 우리가 금방 경험하는 일이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언어 생활이 상투적인 공식으로 이루어지나하면, 그것은 비참한 일일 수 밖에 없다. 그것은 세계와 나 자신에 대하여 순정한 접촉이 없이 산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기 때문이다. 학문의 세계에서 이것을 심각한 결과를 가져온다. 외래사상은 많은 경우 수용자의 현실에 그대로 맞아 들어가기 어렵다. 이것은 물론 단순히 추상화되고 공식화된 언어로만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중요한 계기의 하나는 물질적 발생적 근거로부터의 분리이다. 공허한 공식으로서의 학설이 살아 움직이는 현실에 맞아들어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다분히 언어에 대한 살아 움직이는 체험이 결여된 것과 관계되는 일이다. 이러나 저러나 언어를 단순히 사회와 제도의 프로토콜의 일부로만 이해하는 것이 인간 현실을 잘못 파악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외래사상의 문제를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특히 오늘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것은 전통 시대에 있어서 더 큰 문제였다고 할 수 있다. 언어 자체에 커다란 균열을 가져 올 정도로 외래사상의 문제가 컸던 것은 오히려 전통 시대였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만 학문의 언어와 일상언어의 거리가 컸던 예는 달리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 모든 학문의 언어 또는 개념적 언어는 완전히 한문이어야 했다. 그리하여 그것은 사람의 일상적 체험—일상적으로 감각하고 느끼고 생각하는 체험적 현실로부터는 유리된 별개의 세계에 속하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한문의 추상적인 언어는 일상적 체험의 세계에까지 침범하여 그것을 현실로부터 차단하였다. 이것은 현실 묘사라는 기준에서 고전 설화들의 묘사를 살펴보면 쉽게 예시될 수 있다. 임진록(壬辰錄)은 설화이면서 전쟁의 기록이지만, 여기에 체험적 현실의 묘사를 기대하는 것은 전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선조조의 치세는 “시화연풍하고 국태민안하여 백성이 창하고 시절이 태평”한 때요, 이순신은 “”기골이 장대하고 힘은 삼천근을 들고 말타기와 활쏘기를 일삼“던 사람이고, 그 전투하는 모습은 ”일월투구를 쓰고 만성갑을 입고 칠척 장검을 손에 들고 호달마를 타고 진중에 나와 싸움을 재촉하“는 것으로 말하여진다.⁴⁾ 물론 이러한 고전시대의 묘사를 리얼리즘의 기준으로 비판하는 것은 범주 적용의 착오를 범하는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묘사에서 상투화된 공식이 현실적 표현의 가능성을 압도해 버리는 것은 틀림이 없다. 그리하여, 그것은 일상 언어의 리얼리즘을 어렵게 만들고 급기야는 우리의 사고의 현실성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국한문의 분열로 인하여 일어나는 언어의 빈곤화는 공식화된 표현의 침해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어떤 경우에도 언어는 자연스러운 수행적 조건에서 습득되는 것인 만큼, 감각적 정서적 체험의 현실성은 습득된 언어 속에 남아 있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감각적 체험도 보다 높은 분절화에 의하여 변형됨으로써만, 그것의 복합성을 드러낸다. 사람의 감정은 희로애락의 네 가지라든가 또는 외로애구애오욕 (喜怒哀懼愛惡欲) 일곱 가지라고도 한다. 하여튼 그것은 간단히 분류될 수 있는 유형 몇 개로 생각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은 이 유형으로부터 수없는 다른 형태로 변주될 수 있다. 그것은 감정이 구체적인 상황에 연결됨으로써이다. 문학이 사람의 감정을 표현한다고 할 때, 그것은 원형적인 감정을 표현한다기 보다는 구체적인 사건의 맥락 속에서 여러가지로 나타나는 감정의 변주를 표현하는 것이다. 이것을 언어적 표현과의 관계에서 다시 말하면, 감정은 여러 언어적 맥락 속에서 수많은 뉘앙스를 가진 것으로 변주된다. 이러한 사정은 감각이나 지각의 체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것은 사물이나 인물과의 상호작용 그리고 사건—이러한 것들을 일정한

4) 소재영, 장경남 역. (1993). 임진록.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맥락으로 구성하는 언어 속에서 그 복합성을 드러낸다. 감정이나 감각 또 다른 인간의 체험의 복합성은 잠재적인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사건의 싹 텍스트 속에서 비로소 현실이 된다. 감각을 포함하여 인간의 구체적 체험을 구출해내는 것은 그것을 넘어가는 언어를 통하여서이다. 분열된 언어의 상황 속에서는 우리의 감각 체험도 단순화 또는 빈곤화된다.

감각의 빈곤화는 삶을 빈곤화한다. 또는 거꾸로 그리니만큼 그 풍부화는 삶을 풍부하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문제되는 것은 단지 향수의 풍부성이 아니라 삶의 조건으로서의 현실 인식이다. 풍부한 감각은 우리로 하여금 주어진 현실을 보다 정확하게 또 섬세하게 인지할 수 있게 한다. 이 기능은, 이미 비친 바와 같이, 단순히 그 자체로 우리의 감각을 예리하게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물과 인물 그리고 사건과의 상호 작용 속에서이다. 또 달리 말하건데, 예리하여진다는 것은 사물과 인물과 사건의 여러 구체적인 뉘앙스에 주목하게 된다는 것을 말한다. 경험이 중요한 것은 감각을 예리하게 하여 사물의 구체적 모습과 차이를 인지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이 경험의 중요성은 개인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집단적이다. 이 집단적 경험의 시간적 확장이 전통이다. 특히 인간과 세계에 대한 섬세한 교섭의 역사를 기록한 전통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우리의 전통적 언어 생활도 이러한 기록을 많이 남겼다. 그러나 그 언어가 원천적으로 분열된 것일 때, 감각의 예리화, 경험의 구축 그리고 현실의 정확하고 섬세한 인식을 위한 언어적 작업이 어려워지는 것이 불가피하다. 우리의 단순한 도덕주의, 표어주의, 집단 정서주의, 이러한 것들에 일관되는 연역주의 등은 이러한 유산의 문제성에 연결되어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서양의 영향이 다신 한번 언어와 현실을 분리시키는 일을 한다면, 그것은 한문과 한문의 고전에 지배되었던 우리의 전통이 해놓았던 일을 더 계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역설적으로 이러한 상황의 극복에 있어서도 서양 언어의 학습은 중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문 전통이 우리의 감각과 사상과 삶의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것은 우리 문화에서 가장 심각하게 검토되어야 할 문제이다. 여기에서의 나의 견해가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들릴는지 모르나, 이것을 전적으로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매우 편벽된 관점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언어의 문제에 관련하여 여기에서 간단히 말해 본다면, 한문이 생활 언어로부터 분리되어 존재해 온 것은 틀림이 없다. 한문은 중국에서도 이미 그러한 상태에 있었다. 그것이 바로 한문의 성격이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이것은 더 강조되었다. 한문의 서적들의 철저한 경전화는 그것을 역사적 사회적 생성의 상황으로부터 분리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오래 전에 김용옥 씨가 지적한 일이 있는 일이지만, 한문의 경전들이 우리말로 번역되어 흡수되었다고 사정은 달랐을 것이다. 한문에 대신하여 가장 강력한 외래어가 된 영어와 다른 서양어 (그리고 그것이 살아 있는 언어라는 의미에서 중국어까지도 포함하여) 또 일반적으로 외국어의 경우 그것들은 한문과 같은 위험을 내포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물론 그 이유의 하나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 강하게 성립되어 있는 주체의식이지만, 그들 언어 자체가 경전의 언어가 아니며, 설령 경전적인 텍스트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경전이 역사와 사회 그리고 인간의 생활 현실로부터 고립하여 존재하는 경전일 수 없는 것이 오늘의 사정이라는 것들도 이유가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배우는 대부분의 외국어는 신체적 언어와 추상적 언어의 창조적 교섭에서 이루어진 위대한 문화 전통들을 가지고 있는 언어들이다. 우리는 이러한 언어들을 통하여—그 문학과 철학을 통하여 언어가 신체적 체험의 직접성과 개념적 추상화 사이에 어떻게 존재하는가를 체험할 수 있다. 참으로 외국어 학습의 궁극적인 의미는 이러한 언어의 복합적 존재방식에 대한 깨우침에 있다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 자신의 모국어로 돌아 오는 일을 의미할 것이다. 결국 모국어는 그 속에서 태어난 사람에게는 자신의 가장 근원적인 뿌리와 같이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되풀이 하건데, 한문에 비하여 오늘의 외국어 학습에 따르는 위험도의 감소를 말한 것은 정도의 문제에 불과하다. 위에서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살아 있는 언어의 움직임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언어는 언제나 공식화하고 상투화한다. 그러면서도 우리와는 다른 언어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언어의 깊은 체험은 우리를 그러한 언어 소외 (동시에 현실 소외)로부터 우리를 해방할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오늘날 실용 영어의 강조에서도 나는 이중의 가능성을 본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그것은 일부는 언어의 수행적 성격에 대한 통찰에 기초하고

있다. 이것을 어떻게 언어 교육에 도입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가장 심각한 의미의 문제 제기이다. (이것은 영어와 외국어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어 교육에도 해당된다.) 그러면서 이것은 보다 풍부한 언어 표현의 체험으로 승화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실용 영어의 강조는 다시 언어의 문제가 쉬운 공식이나 처방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을 본다. 그 통찰은 참으로 깊은 언어의 원천에 대한 것은 아니다. 우리는 영어를 공부할 안하면 영어가 공부된다, 교과서와 선생님을 버리면, 영어를 마스터할 수 있다. 또는 어떤 종류의 체조를 통하여 영어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말을 듣는다. 우리는 얼마 안 있어 영어 잘하는 한방약의 광고를 보게 될지 모른다. 실용 영어의 강조는 어쩌면 모든 것을 단순한 공식으로, 단방 약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 풍토의 가장 대표적인 표현인지도 모른다. 그것은 높은 우주론이나 사회 이론에서 인생의 모든 답변을 발견하던 사고 방식의 통속화인지도 모른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분열된 언어 체험의 오랜 전통의 미로에서 아직도 헤매고 있는 것일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우창. (1993). “외국문학의 수용의 철학,” *법없는 길*. 민음사.
 소재영, 장경남 (역). (1993). *임진록*.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Turner, V. (1987). *Body, brain and culture. The anthropology of performance*. New York, Performing Arts Journal Publications.
 Whorf, B. E. (1964). *Language, thought and reality*. Cambridge, Mass.: MIT Press.